

현대인은 대부분 경험적 지식이 지각에 의존하거나 지각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플라톤이나 다른 특정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 사이에서 ‘지식’이라고 부를 만한 앎은 감각에서 유래하지 않으며, 유일한 현실적 지식은 개념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전혀 다른 학설이 존재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2+2=4”는 진정한 지식이지만, “눈은 하얗다”는 진술은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철학자의 진리 체계 안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 철학자들은 극단적인 명료함을 피하는 것처럼 개념 경계의 혼동 역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아마 파르메니데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분명한 틀이 잡힌 견해는 플라톤의 것이다.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의 전반부에서 지식은 지각과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책에서 그는 ‘지식’에 대한 정의를 찾으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결론을 제외하고는 어떤 결론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끝난다. 결국 몇 가지 정의가 제안되고 플라톤은 거부하지만, 특별히 만족스러운 정의는 제시되지 않는다.

제시된 정의 가운데 첫째 정의이자 고찰해볼 수 있는 유일한 정의는 테아이테토스가 이렇게 제안한 것이다. “어떤 것을 안 사람은 자신이 안 그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지식은 지각 말고 다른 것이 아닌 듯합니다.” ㉔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견해를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프로타고라스의 학설과 동일시한다. 다시 말해 주어진 어떤 사물이든 “그것은 나에게서는 나에게 나타난 대로 존재하고, 너에게는 너에게 나타난 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각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고, 존재하는 지식으로서 틀릴 수 없을 테지”라고 소크라테스는 덧붙인다. 이후의 논증은 대부분 지각의 특성을 밝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일단 이 작업이 완료되면, ㉕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지각은 지식일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의 학설에 모든 것이 언제나 변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학설을 추가한다. ㉖헤라클레이토스의 학설은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물은 모두 현실적으로 생성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주장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학설이 감각의 대상에 대해 참이지만 현실적 지식의 대상에 대해서는 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플라톤의 이러한 적극적 견해는 대화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 정보로만 남아 있다. 감각의 대상에 적용될 뿐이라도, 헤라클레이토스의 학설에 지식이 지각이라는 정의를 추가하면 지식은 존재가 아니라 생성에 대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지각은 대상과 감각 기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여겨지며, 헤라클레이토스의 학설에 따르면 지각 대상과 감각 기관은 늘 변하고, 변화 속에서 지각표상 역시 변한다. 소크라테스는 건강할 때는 포도주 맛이 달콤하지만 병이 났을 때는 시큼하다고 예를 드는데, 여기서 지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지각표상에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의 학설에 단호하게 맞서 반론을 제시하고, 이어서 어떤 반론은 철회한다. 프로타고라스는 돼지와 개코원숭이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각하는 동물이므로 만물의 척도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꿈을 꾸거나 미쳤을 때 지각의 타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만일 프로타고라스가 옳다면, ㉗이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함을 암시한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의 견해에서 여러 반론에 대응할 답변을 찾으려고 한다. 꿈에 대해서 말하자면, 꿈속의 지각표상은 지각표상 그대로 존재한다. 돼지와 개코 원숭이를 다룬 논증은

비속한 오용 사례로 처리한다. 사람이 제각기 만물의 척도라면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만큼 지혜롭다는 논증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를 대신해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추천한다. 어떤 판단이 다른 판단보다 더 참될 수 없지만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의미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답변은 소크라테스 스스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㉘의사가 병의 경과를 예견할 때, 실제로 나의 미래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바보보다 더 나은 지식의 척도라는 결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인간은 제각기 만물의 척도라는 학설에 제기한 반론이고, 간접적으로만 ‘지식’은 ‘지각’을 의미한다는 학설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데, 전자의 학설이 후자의 견해로 이어질 경우에 한하여 그렇다.

헤라클레이토스의 학설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하므로, 이때 지각이 바로 지식이라면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조차 성립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이 꽃은 하얗다.”라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 꽃의 상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만물이 온갖 방식으로 변한다면 봄을 봄이라 부를 권리도 없으며, 지각을 비지각이 아니라 지각이라 부를 권리도 없다. “지각은 지식이다”라고 말한다면, 꼭 마찬가지로 “지각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된다.

이 논증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이 영속적 흐름 속에 있더라도, 낱말의 의미는 한 시점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장도 명확하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담론과 지식이 가능하려면 조금이라도 불변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지식을 지각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에 맞선, ㉙플라톤의 마지막 논증은 다음과 같다. 그는 우리가 눈이나 귀와 함께 지각하지 않고, 귀를 통해 지각한다고 지적하며, 이어서 우리가 획득한 어떤 지식은 감각 기관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우리는 소리와 색이 닮지 않았다는 점을 알지만, ㉚어떤 감각기관도 소리와 색을 둘 다 지각하지는 못한다. ‘실존과 비실존, 유사성과 비유사성, 동일성과 차이성, 단일성과 수 일반’을 파악하는 특수 기관도 없다. “정신은 자신을 도구삼아 어떤 사물을 관조하고, 육체가 갖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물을 관조한다.” 우리는 촉각으로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지각하지만, 둘을 실존하고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정신이다. 정신만이 실존에 이를 수 있고, 실존에 이르지 못하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는 감각을 통하는 것만으로는 사물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감각만으로는 사물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㉛인상들이 아니라 반성 속에 있으며, 지각은 지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각은 실존을 파악할 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진리를 파악할 때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01. ㉔, ㉕, ㉖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㉔의 견해는 ㉖보다는 ㉕의 학설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룬다.
- ② ㉕의 견해는 ㉔의 견해를 반박하며 생긴 근거를 활용하여 ㉖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 ③ 저자는 ㉖의 입장에서 ㉕와 ㉔의 견해를 학술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고 있다.
- ④ ㉖의 견해는 ㉕의 견해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데, 이는 저자가 ㉖가 ㉔의 관점에 부합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㉔, ㉕, ㉖ 중 저자가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관점은 ㉕이다.

02. 위 글의 내용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단일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alpha$ 의 경우 외부 대상을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② 꿈에서의 지각표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외부대상의 지각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 ③ 테아이테토스의 정의는 소크라테스의 관점에 비해 현대인의 상식과 보다 부합한다.
- ④ 상대성으로 인한 개념 경계의 혼동을 우려하는 학자는 소크라테스의 관점보다 프로타고라스 학파의 관점을 지지할 것이다.
- ⑤ 플라톤의 지식체계에서 대부분의 명제는 감각적 경험의 바깥에 존재한다.

03. ㉠~㉢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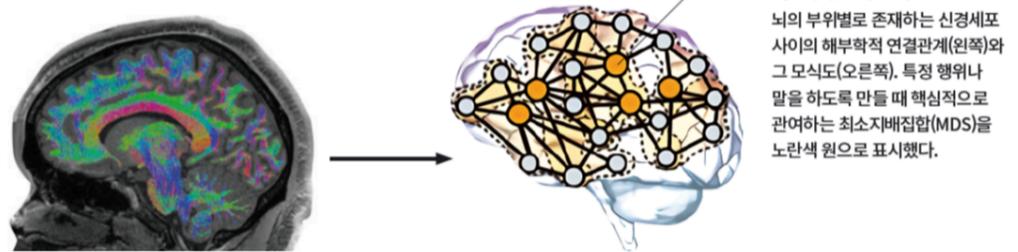
- ① ㉠은 플라톤이 논증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논증의 결론에 해당한다.
- ② ㉡이 모든 명제에 적용되는 사실이라면, 스스로의 결론을 약화시키게 된다.
- ③ 테아이테토스의 관점에서 ㉢은 동의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동의할 수 없는 전제하에 반론을 전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④ ㉢의 부정은 궁극적으로 플라톤의 주장을 약화시킨다.
- ⑤ 지각과 인식의 전 단계에서의 기능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상위 단계에 영향을 준다면 ㉢의 결론은 강화된다.

04. 위 글과 <보기>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최소지배집합(MDS)은 뇌의 부위별로 신경세포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뇌 신경연결망의 중첩 구조



밝혀진 구조로, 정보의 흐름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의 다발로,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구조다. MDS의 비중이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에서 7%가 채 되지 않으므로, 방대한 신경 다발 사이의 관계인 커넥톰 연구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MDS는 특정 감각들의 변별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감각의 통제, 심지어 동작과 감각의 동시적 제어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나의 MDS에 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파괴돼도 다른 최소지배집합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뇌의 신경연결망은 중첩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 역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러한 중첩은 선충부터 영장류까지 가지고 있는 설계로,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뇌에 폭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뇌의 근본적인 모듈\*인 것이다.

\*모듈: 설계적 관점에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하부 모듈의 연결을 통해서 구성한다.

- ① MDS가 소리와 색을 동시에 지각한다는 것을 찾아낸다면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감각을 통해서 충분히 대상의 실존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② MDS가 감각기관에서 온 정보를 변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중첩구조는 대상의 실존을 인식하는데 일정부분 방해가 되겠군.
- ③ 플라톤의 입장에서 MDS는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변별하는 기능을 처리하는 특수한 모듈은 아닐 것이다.
- ④ MDS가 <보기>의 결론과 달리 모듈이 아니라 단지 개별적인 감각신경의 연결망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면, 플라톤의 마지막 논증은 강화된다.
- ⑤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MDS가 단지 정신을 처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단지 감각을 처리하는 기구라고 볼 것이다.

05. 단어들의 관계가 명료함 - 혼동과 유사한 것은? [1점]

- ① 필진성 - 개연성
- ② 변곡점 - 전환점
- ③ 사유 - 연역
- ④ 실존 - 지각
- ⑤ 명징 - 무근